

영암군,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전 행정력 집중

이월체납 34억8천3백만원 중 5개월간 12억2천2백만원 징수 음·면 합동 번호판 영치 전담차량 2대·스마트폰 이용 수색

영암군은 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영암군의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자주재원을 확보하고 성실납세자와의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서 지방세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영암군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34억8천3백만원으로 지난 3월부터 8월까지 이월체납액 집중 징수 활동을 펼친 결과 12억2천2백만원을 징수하여 이 기간에 예금 및 부동산 압류, 신용 카드 매출채권 압류, 관허사업 제한, 공공정보 기록등록, 고액 체납자 명단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였다.

특히, 자동차세 체납 차량에 대하여는 음·면과 합동으로 번호판영치 전담차량 2대와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아파트 주차장, 산업단지 이면도로, 상업시설 밀집 지역 등을 집중적으로 수색하였다.

자동차세 체납이 1건인 경우 납부 계도하고

2건 이상인 경우 체납 차량 단속을 실시하여 8월까지 276건의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125백만원을 징수하였다. 이로 인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고서는 차량을 운행하지 못한다'라는 인식을 체납자에게 심어주었다.

그동안, 3년에 가까운 코로나19의 장기 유행은 체납징수 활동에 걸림돌이 됐다. 체납액 징수는 체납자를 만나 납부를 독려하는 과정이 필수적인데 감염병 확산으로 대면 활동을 최대한 자제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가 감소 추세여서 그간 추진했던 비대면 징수 활동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대면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군과 읍면 합동 징수반을 편성해 9. 14일부터 9. 30일까지 3주간 비대면 기법과 대면 징수 활동을 펼쳐 이월체납액 징수 목표 40% 달성을 위하여 전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라



고 하였다. 다만, 군 관계자는 "확실화된 체납처분을 지양하고 체납자의 납부능력을 고려한 맞춤형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청년 등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체납처분 유예 및 분할 납부 등의 편의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공감하는 세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영암=조대호기자

함평군 보건소, 비브리오 패혈증 예방수칙 준수 당부

함평군 보건소가 비브리오패혈증 감염 지역 주민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비브리오 패혈증은 해수 온도가 상승하는 5-6월부터 시작해 9월경에 집중 발생하는 질환으로, 오염된 어패류를 생식하거나 상처 난 피부가 오염된 바닷물에 접촉될 때 감염된다.

감염 시 발열, 오한, 혈압 저하, 설사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간질환자, 알코올중독자, 당뇨병 등 만성질환자와 같은 고위험군의 경우 치사율이 50%에 달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군은 관내 당뇨, 알콜중독자 등 고위험군 263명을 대상으로 매일 전화·방문 등을 통해 관리하고 있다. 또한, 지역 내 어패류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수족관수 검사, 영업자 위생수칙 안내 등 선제적 예방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어패류 85℃ 이상에서 충분히 익히기 ▲피부에 상처가 있는 사람은 바닷물 접촉을 피하기 ▲어패류는 수돗물에 2-3회 깨끗이 씻은 후 섭취 ▲조리도구 소독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최근 타 지역에서 바다세우를 생식해 감염 된 뒤 사망한 사례가 있다"며 "주민들께서는 어패류 익히기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함평=김광춘 기자



목포시, 음식관광 선도할 목포음식명인·명가 모집

목포시가 목포음식 맛의 경쟁력을 높이고 음식관광 문화를 선도할 '목포음식 명인·명가'를 모집한다.

목포음식 명인은 목포시에 주소를 두고 목포음식을 조리하는 자로서 일반시민 50명 이상 추천을 받거나, 각종 향토음식경연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은 경력이 있다면 신청 가능하다. 목포음식 명가는 해당 음식을 10년 이상 영업을 한 사실이 있고 일반시민 50명 이상의 추천을 받으면 신청할 수 있다.

목포음식 명인·명가 신청 기간은 오는 26~30일까지며, 신청을 희망하는 개인이나 업소는 목포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목포시청 관광과(270-3743)로 방문, 등기우편(목포시 양율로 203, 목포시청 관광과), 이메일(dmsgp3926@korea.kr)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목포=기동취재본부

무안군, 가을개학 대비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지도 점검



무안군은 오는 30일까지 학교 및 학원가 31곳 주변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공무원과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 10명이 진행하는 이번 점검은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편의점, 문방구, 학교매점 등 69개소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점검 항목은 △식품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진열·판매 여부 △조리·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중증자 개인위생관리 여

부 △어린이 정서 저해식품 판매 여부 △고열량·저영양 식품 및 고카페인 함유 식품 판매 여부 등이다.

아울러 편의점, 분식점 등 조리업소 종사자를 대상으로 위생마스크 착용 등 코로나19 생활방역 지침안내와 간절기 식중독 발생 예방 교육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위생업소 특별 관리로 어린이 기호식품의 안전한 판매환경을 조성하고, 부정·불량 식품으로부터의 어린이 건강보호를 최우선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무안=이기성기자



영광군 "고향사랑기부제로 고향 사랑 보여주세요"

영광군은 지난 8일부터 9일까지 영광IC 및 종합버스터미널에서 추석명절을 맞아 고향을 찾아온 향우 및 외지인을 대상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활동에 나섰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현 거주지 외 지자체에 연 최대 500만 원까지 기부하고 세액공제(10만 원까지 100%, 초과분은 16.5%)와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기부자는 애향심과 세액공제·답례품 혜택을, 지자체는 기부금을 통한 재정 확충을, 지역 생산자는 특산품 시장 형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1석 3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도이다.

영광군은 고향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하여 읍·초 전담팀과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각종 연구발표회, 향우회, 동창회 행사 등에 참석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앞으로도 관내 주요 관광지와 축제 방문 홍보, 조례 제정, 답례품 선정 등을 할 계획이다. 영광=서희권기자

신안군 "우리가 만들 보물섬 지도, 기대하세요"

"12년 평생 비금도에 살고 있는데, 저런 보물이 있는 줄 몰랐어요." 비금도 초등학생의 깜찍한 소감이다. 학생들은 비금도의 보물 같은 명소들을 배운 후, 각자의 보물을 떠올렸다. 염전의 소금더미, 해변의 파도, 소중한 반려견, 아끼는 핸드폰 등 각자의 보물은 다양했다.

지난 8월 19일부터 신안 비금도 조류생태마을학교에서 '섬마을 보물지도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이어서 24일에는 압해도 동트리마을학교에서도 같은 취지의 프로젝트 첫 수업이 열렸다. 두 프로젝트는 오는 11월 초까지 격주 또는 매주 진행된다.

이번 보물지도 프로젝트는 신안군의 '2022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의 일환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올해부터 처음 시행한 '지역문화 활력촉진 지원사업'은 문화 자원의 지역

균형 발전을 모색하는 장이다.

신안군은 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6개 지자체 중 한 곳이다. 사업 선정에 이어 섬마을공동체와 마을학교 등과 소통하며 섬세한 사업 준비를 마친 신안군은, 이번 '섬마을 보물지도'를 시작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동시에 진행한다.

'섬마을 미술학교' '보이는 라디오와 유튜브 채널 운영' '이웃섬 탐험대' '그림책 아일랜드' 등이 더해지는 프로그램이다. 무대는 비금도, 압해도, 하의도, 흑산도 등 6개 섬이다. 신안=이택주기자

**아세요?
한수원이 요즘 바쁜 이유**

온실가스를 없애고
미세먼지는 줄이고
기후변화까지 막는
지구를 살리는 바른 에너지를
세계 곳곳에서 만들고 있거든요

**한수원은 지금
바른 에너지 개발로 열일 중**

한국수력원자력주